# 신토불이냐 신천불이(身天不二)냐

## (출16:1~20)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십오일이라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토불이냐 신천불이(身天不二)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신토불이냐 신천불이(身天不二)냐'
1989년에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한창 협상에 올랐을 때에, 배 일호 가수가 부른 "신토불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분이 KBS에서 방영하는 "6시 내 고향" 촬영차 농촌을 방문했다가 동네 어귀에 걸린 신토불이라는 간판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신토불이를 주제로 하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사의 첫 부분이 "너는 누구냐 / 나는 누구냐 /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불이"라고 시작하는 이 노래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온 국민이 농산물 개방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에,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신토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면서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이 붐을 일으키게 되어서, 2006년에는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게 되고, 고향인 논산에는 신토불이 노래비까지 세워졌다고 합니다.

'신토불이'의 뜻은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발전해서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산출된 농산물이어야 체질에 잘 맞는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지만, 며칠 전 신문기사에 참 허탈한 내용이 나왔는데, 식품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들까지도 국내산 농

산물과 축산물과 수산물을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품목별로 이야기를 해보면 면류(국수)의 식재료 중에 몇 프로가 신토불이 재료고 몇 프로가 수입 재료인 것 같습니까? 96.3%가 수입재료이고, 전통식품이라고 하는 두부와 묵은 74.1%가 외국산입니다.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된장, 고추장, 장류에 들어가는 72.4%가 외국산 원료이고, 군것질하는 과자는 81.4%, 빵은 82.7% 다 외국산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 임박했을 때에 신토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만, 오늘의 현실을 보면 신토불이의 입장에서는 참담합니다.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드시죠? 호주산이나 미국산 쇠고기 안 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칠레산 포도, 스페인 아이스크림, 멕시코나 독일에서 건너오는 돼지고기 등…
쇠고기 100g에 6,000~7,000원씩 하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국산은 비싸서 못 먹어요. 그 가격이면 하루 밥상 거리가 다 준비되는데 신토불이는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신토불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국산 농산물과 축산물이 백성을 외면했습니다.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토불이가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태어난 땅을 대한민국 국토인 한반도의 남쪽으로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아예 지구로 넓혀버려요. 까치가 많은 나라에서는 까치가 길조이고, 까마귀가 많은 나라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인 것처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마음대로 가져다 붙이듯이 이제는 스페인 아이스크림 먹고 칠레산 포도를 먹고 멕시코산 삼겹살 구워먹으면서 우리가 태어난 땅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신토불이를 합리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설교를 동 시간에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에서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태어난 땅을 한반도에 국한시켜야 되겠습니까? 지구가 내가 태어난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는 신토불이가 아니라 신성불이(身星不二)라고 해서 지구라는 별에 태어났으면 지구에서 산출되는 것들을 먹고 살자고 이야기해야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태어난 땅을 지구로 넓혀서 생각하며 신토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답이 나오질 않고, 태어난 땅의 범주를 아무리 넓혀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게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몸이 태어난 땅인 신토(身土)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버리고 내 나라 영토를 넘어 지구촌으로 넓혀도 포착할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하나 더 만들어 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신천불이(身天不二), 하늘에서 산출되는 음식을 먹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토불이의 신은 육체를 말하는 몸 신(身)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넓히면 단순히 몸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 몸

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포함되는 양식과 물과 옷 같은 기본적인 요건까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모두 공급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죽어있는 땅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산출하질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오는데, 이것이 바로 선민의 삶의 시작으로 선민은 신토불이의 삶으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신천불이의 삶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선민에게는 자기가 태어난 땅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브라함도 태어난 땅을 벗어나서 살도록 하나님께 요청받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고, 신토불이로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선민들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천불이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의식화 시키시고 몸에 익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산출하지 않는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시켜 주셨는데 이게 선민의 curriculum으로 선민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셨다면,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양식을 주심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셨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근본적으로 신천불이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신천불이의 삶의 근본이고 핵심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태어난 땅과 하나이고, 내가 태어난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때에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지금 내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먹고 살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신천불이의 삶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위에 있는 물리적인 하늘(Sky)이 아닌 영적인 하늘(Heaven)인 하나님이 보좌를 펴고 앉으신 천국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을 살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출처가 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선민들이 삶의 근거와 삶의 발판을 이 땅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이것을 또 다시 말하면 하늘을 잠깐 잊고, 하나님을 잠깐 기억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의 삶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면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면 밥 한 숟가락도 입에 넣지 말라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마시는 물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밥 한 숟가락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로부터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 쉽게 말하면 내 은행 계좌에 돈이 많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게는 연금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수 있을 만큼 육체노동을 할 수 있게

건강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은 선민에게는 어울리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 반역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으로 노동을 하고 그 값으로 하루를 산다는 현상이 나의 모습이더라도,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하늘에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애굽에서의 신분은 노예였으나 애굽이라는 나라가 커다란 울타리가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다 제공이 되었습니다. 삶의 근거인 양식을 애굽이라는 울타리와 애굽이라는 땅에서 제공을 받았는데, 광야로 나오고 보니 눈에 보이는 삶의 근거와 발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돌아버리는 겁니다.
“열 가지 재앙이 굉장했고, 홍해를 건넌 것도 굉장했고, 엘림에서의 놀라운 종려나무 그늘과 샘물을 만난 것도 굉장했다. 그런데 그러면 뭘 하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양식이 없지 않느냐? 사막에서 풀 한포기 캘 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자는 것이냐?”라고 하는 원망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타락한 뒤에 갖게 되는 근본적인 성향은 제일 먼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삶의 근거 확보를 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내가 먹고 살 양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일 크고 무서운 무기는 핵무기가 아닌 양식(곡식)입니다. 그 무기를 활용함에 있어서 미국은 양식이 남아돌면 바다 한 가운데 다 버리는데 그것이 남아돌면 자국의 농민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양식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확보하는 것이 삶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관심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너희 양식이 나올 구멍이 없다는 것을 뼛속까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몸은 하늘과 하나 됨으로 살 수 있을 뿐, 땅에서 나는 것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올라온 옥수수를 먹고, 쌀로 밥을 지어서 먹고, 그 쌀로 밥을 지어 먹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선민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 한 마지기라도 가지고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늘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야 신천불이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먼저 나온 것이고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로 다툼이 있습니다.
원전은 중국 원나라 때에 보도 법사라는 사람이 펴낸 노산연종보감(廬山蓮宗寶鑑)의 “몸과 흙은 본래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라는 구절에서 나왔다고 하고, 또 동의보감에 “사람의 살은 땅의 흙과 같다”라는 표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만, 이 말들이 신토불이의 출처입니까?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한 말의 내용이 신토불이고, 이 말은 이 땅에서 너희 삶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이 땅으로부터 근거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말한 것이 마귀가 말한 전체 말의 요약이고, 신토불이라는 말의 오리지널이 마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천불이의 오리지널은 무엇입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의 예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며 흘리신 피와 살을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이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하냐? 신천불이 의식으로 살게 될 때에 이 땅에서 몸으로 사는 것도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이 땅에서 삶의 근거를 확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서 만나를 이틀 치만 모아놔도 다음날에는 구더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로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이 신천불이의 삶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것입니다.
쇠고기를 먹을 때에 죽은 것을 먹는 것이고, 밥을 먹는 것은 벼가 죽은 것을 먹는 것이고, 죽은 것을 먹는 것이 양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의 죽음을 먹습니다. 늘 내가 주님의 죽음을 먹으면서 그 주님의 죽음이 내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님의 죽음을 먹으면 하나님으로 배불러지게 되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물을 마시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노동해서 얻은 돈으로 쌀을 사서 밥을 지어 먹는데도 그 쌀과 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해지셨기 때문이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신토불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밥상이 약상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밥상에서 먹는 모든 식재료를 신토불이로 만들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 없이 오래살 수 있다는 말인데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신토불이의 밥상이자 이 땅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내가 산다는 생각, 땅에서 삶의 근거를 확실하고 크게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생각 자체가 병들고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막이 옥토로 변해서 곡식이 나게 못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곡식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땅에서 솟아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듯이 내리게 하신 이유에는 교훈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몸으로 영위하게 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신천불이의 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야 진짜 밥상이 약상이라는 말이 성립되므로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먹어야 될 음식은 쌀과 빵이 아니고 마셔야 될 음료는 물과 주스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나님으로 배불러집니다. 해보세요.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죽음을 먹는 것으로, 사람을 만날 때든지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바라볼 때든지 돈을 대할 때든지 언제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으로 주님의 죽음을 먹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데, 그 증거가 바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마시면 분명히 이 물은 땅에서 퍼 올려 마시는 물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실하게 느껴지고, 밥 한 수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늘과 내 몸이 일치가 되면서 신천불이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선민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을 때에도 이것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인데, 그 생각을 못할 때에 바알 숭배로 빠지게 되고, 땅에서 풍요하게 하는 신인 바알을 좇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토불이는 마귀의 말로 땅에 삶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땅에서 곡식이 올라오기 때문인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주시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막은 죽음의 땅이지만 안 죽고 40년을 살고, 산 이유는 만나 때문이고, 만나라는 양식은 하늘에 내려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밥 먹고 살지만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온 것이고, 만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밥이고 물이고 옷이고 돈이고 하여간 이 땅에 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필수조건의 상징이고, 그 만나는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더 이상 땅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도 내게 공급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의 원천인 근거나 발판을 찾지 말라는 것은 하늘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천불이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날마다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먹으면 영이신 하나님으로 기운이 충만해지는데,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외 없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인 예수님을 먼저 먹으면, 신천불이가 되어서 내 몸과 영이 하늘과 하나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처럼 백합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먹는 쌀과 밥그릇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물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모든 천지 삼라만상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주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몸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늘과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신천불이.
우리 마음이 하늘과 하나 된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우리 몸으로 사는 삶이 하늘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주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먹고 호흡하면 하나님 충만이 되고, 이 땅에서 몸으로 살 때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이 확실해지는, 신천불이의 삶인 몸과 하늘이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참 기가 막힌 삶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많이 벌겠다고 분주하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먹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로 신천불이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낭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